



신앙과 용기로 박해에 대응함

“두려워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으로 굳건해지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8년과 1839년 사이의 겨울, 미주리 주 민병대는 후기 성도들을 주에서 몰아내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선지자는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 겨울과 이듬해 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 있는 집에서 쫓겨나면서 끔찍한 고통의 장면이 펼쳐졌다. 그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뒤에 두고 떠나면서 브리검 영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의 인도 하에 서부 일리노이 주를 향해 동쪽으로 약 322 킬로미터의 여행을 시작했다. 튼튼한 포장마차나 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와 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잠을 잤다.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 발을 누더기 천으로 감싸고 눈 속을 걸었다.

1839년 2월, 한 친절한 이웃이 에머 스미스에게 네 명의 자녀들을 마차에 태우고 얼마 안 되는 짐을 짊으로 묶어 신도록 도와주었다. 그 무리가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에 다다랐을 때, 에머는 아이들과 함께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넌으며, 선지자의 성경 번역 원고를 두 개의 천 가방에 담아 치마속에 넣어 허리에 둘러가지고 갔다. 그녀와 그 밖의 많은 궁핍한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 퀸스에서 피난처를 찾았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성도들을 돌봐준 지역 주민들의 많은 친절한 행동으로 그 고통은 경감되었다.



1839년 2월,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머 스미스와 자녀들은 미주리 주의 박해자들에게 쫓겨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걸어서 건넜다.

선지자 조셉은 성도들을 몹시 돕고 싶어했으나, 기도를 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성도들을 인도하는 브리검 영과 다른 형제들에게 편지를 통해 지시를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격려와 평안의 말을 적어 보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리와 성약 123:17)

1839년 4월 6일, 선지자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 리버티 감옥에서 미주리 주 데이비스 군 갤러틴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법정에 출두한 후, 형제들은 다시 한 번 갤러틴에서 미주리 주 분 군에 있는 컬럼비아로 재판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4월 중순에 선지자와 다른 수감자들이 컬럼비아로 가는 도중, 간수들은 그들을 도주하게 했다. 일주일 후에 형제들은 일리노이 주 퀸시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했다.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선지자와의 재회에 대해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 다시 한 번 조셉 형제의 손을 잡는 행복한 특권을 갖게 되었다. … 그는 기쁨에 넘쳐 우리와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참으로 기뻐다. 그는 막 감옥과 원수의 손에서 석방되었으며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 조셉은 평소와 다름없이 솔직하고 숨김없으며 친근한 모습이었다. 예머 자매는 참으로 행복해 했다.”¹

선지자는 이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인해 그와 더불어 참으로 많은 것을 용감하게 견뎌 낸 동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가중되는 부당한 처사와 고통 아래서 성도들의 행동은 칭찬 받을 만한 것이었으며, 폭도들의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형제들을 보호한 그들의 용기,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극심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진리의 대업에 대해 갖고 있던 그들의 애착, 서로에 대한 사랑,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나와 나의 형제들을 기꺼이 돕고자 했던 마음, 미주리 주를 떠나면서 치른 희생과 가난한 미망인과 고아들에게 준 도움, 그리고 더 나은 곳에서 그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 일,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모든 선과 덕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 받게 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찬사를 받게 했으며,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게 했습니다.”²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진리의 적은 주님의 종들을 적대하며,
특히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적대한다.**

“우리의 종교 때문에 박해는 계속 올리는 천둥처럼 ... 이따금 우리를 향해 왔 습니다.”³

“우리의 종교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놓여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근거도 없이 거짓된 고소와 잘못된 해 석의 결과로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 모든 박해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른 모든 종교 단체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견뎌습 니다.”⁴

“그렇다면, 여러분이 박해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구주의 말씀을 기 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 도 박해할 것이요.’(요한복음 15:20 참조) 그리고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모든 역경은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의 성취입니다.”⁵

“제가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위대한 선을 성취하고 있을 때, 가장 악하고 사 악한 생각들이 저를 향해 들고 일어섭니다. ... 이 백성의 원수들은 자신들이 패 배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저 를 제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렬시킬 것이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전 쟁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타락에 대항하여 참된 기독교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악인과 악마의 천사들과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그에게 대 항하는 모든 지옥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한 사람들 이 반대할 때 그것은 누군가가 기독교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복 이 있을 것입니다.(마태복음 5:11 참조)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맞설 때, 그는 모든 사악하고 부패한 영들이 자신에게 대항 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일 것이고, 이 모든 역경은 우리에게서 돌아설 것이며, 우리가 충실하다면, 이러한 악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엔다우먼트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또한 왕국이 온 세상에 퍼지고 커져 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어리석은 것들에 의해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⁶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죽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순간, 충만한 복음의 영이라는 불꽃이 마음속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는 모든 의의 원수의 영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저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교리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⁷

“저는 진리의 적은 잠들지도 않으며, 모든 중요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사람의 분노를 야기시켜 지역 사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종들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려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용기와 신앙으로 박해를 견딜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여! 이 중요한 열쇠를 통해 유익을 얻으십시오. 즉,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 어려움, 유혹, 역경, 속박, 투옥과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늘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형제를 배반하지 않고,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 혹은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밝혀졌거나 내세에 밝혀질 하나님의 계시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옷자락에 무죄한 자의 피가 묻어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거부하며 몸부림칠 때,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⁹

1830년 봄에 성도들은 물문경의 출판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제 물문경(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이 출판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호세아 8:12 참조) 물문경이 출판되었을 때 상당한 혼란이 일었습니다. 심한 반

대와 큰 박해가 몰몬경의 진실성을 믿는 자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볼 때가 왔기 때문에(시편 85:11; 모세서 7:62 참조) 우리는 반대하는 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 진리와 의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며 지식을 전했습니다.”¹⁰

1839년 7월,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기록했다. “조셉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을 전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갇힌 자라면, 조셉 형제는 여러분보다 앞서 갇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족쇄에 매여 있는 동안 창문의 창살을 통해서만 형제들을 볼 수 있는 곳에 갇히게 될 경우, 조셉 형제도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¹¹

1841년에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단단한 참나무와 같은 진리는 엄청난 힘으로 내리치는 다툼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고 견뎌 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파도가 밀려와도 진리를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나이다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시편 93:3~4 참조) 또한 모든 힘을 다한 폭도들의 박해의 불길도 진리를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타지 않고 서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사람과 천사들 모두에게 중요한 광경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광경을 다른 어느 곳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이 좋지 않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반복되는 박해를 스스로 초래한 백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대업에 애착을 가졌으며,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협과 거의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백성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때문에 맞게 된, 부모, 남편, 아내 및 자녀의 때 아닌 죽음으로 인해 통곡했습니다. 그 백성은 노예와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으며, 영예롭게 자신들의 특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기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¹²



1838년과 1839년 겨울 사이에,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 있는 집에서 쫓겨나 일리노이 주까지 322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여행했다.

하나님의 강한 권능은 의를 위해 박해 받는 자들을 떠받칠 것이다.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 낙담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베드로전서 4:12 참조) 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전에 보고 겪었으며, 박해자들보다 더 나은 소망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란을 겪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마태복음 10:28 참조) 우리는 폭도들과 세상과 악마와, 그들의 대표자와 반대자들과,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즐기며, 지어내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속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온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

“...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명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는 세상이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 온갖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친애하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충실한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충실하고 원수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 죽음에 이르더라도 충실하십시오. 이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8:35 참조)”¹³

또한 리버티 감옥에서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두려워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으로 굳건해지십시오. 인간이 무엇이기예 하나님의 종이 그를 두려워해야 하며, 인간의 아들이 무엇이기예 하나님의 종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우리가 시험받는 불과 같은 시험에 대해,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12~13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며, 구원의 창시자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히브리서 2:10 참조) 여러분과 성도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크게 기뻐하게 하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며, 사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5:11~12 참조)”¹⁴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369~371쪽에 있는 이야기를 복습한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 성도들이 박해에 대응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여러분은 그들이 왜 박해를 기꺼이 견뎌왔다고 생각하는가?
- 조셉 스미스가 의로운 사람들은 종종 박해에 직면한다고 가르친 372~373쪽을 읽는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박해는 어떤 면에서 조셉 스미스 시대의 박해와 비슷한가? 또 어떤 면에서 다른가?
- 373쪽에서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열쇠를 알려주었다.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이 열쇠의 가치를 보여 주었는가? 신앙 때문에 박해에 직면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다른 권고를 줄 수 있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373~374쪽을 참조한다.)
- 375~376쪽을 복습한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신앙과 용기로 박해에 대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강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환란을 겪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우리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역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5:43~44; 로마서 8:35~39; 니파이후서 26:8; 모사이야서 24:8~16; 제3니파이 6:13

주

1. Wilford Woodruff, Journals, 1833~1898년, 1839년 5월 3일자,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History of the Church*, 3:329~330; “Extract, from the Private Journal of Joseph Smith Jr.”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 1839년 11월, 8쪽.

3. *History of the Church*, 6:210; 1844년 2월 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4. *History of the Church*, 2:460;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존 손튼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6년 7월 25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6년 8월, 358쪽.
5. *History of the Church*, 3:331; 현대화된 구두법; "Extract, from the Private Journal of Joseph Smith Jr."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39년 11월, 8~9쪽.
6. *History of the Church*, 5:140~141;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8월 3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7. *History of the Church*, 6:498; 1844년 6월 1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History of the Church*의 편집인들은 여러 증인들의 구두 보고를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설교로 만들었다.
8. *History of the Church*, 2:437; 조셉 스미스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6년 4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6년 4월, 289쪽.
9. *History of the Church*, 3:385; 1839년 7월 2일, 아이오와 주 몬트로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1:84;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41쪽, 교회 기록 보관소.
11. 윌포드 우드럽, 1839년 7월 7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말씀에 대한 보고; Wilford Woodruff, *Journals*, 1833~1898년, 교회 기록 보관소.
12. *History of the Church*, 4:337;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1841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이 전한 보고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4월 15일, 384~385쪽.
13. *History of the Church*, 3:227~229, 232~233;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 콜드웰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8년 12월 16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14.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이 히버 시 김볼과 브리검 영에게 보낸 편지, 1839년 1월 16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교회 기록 보관소.